

[Field Research]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Unloading System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Focusing on the Garak Market*

농산물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Rae-Hyup Lee(이래협)**, Il-Suck Sun(선일석)***

Abstract

Purpose - The Garak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Garak Marke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and is important in connecting consumers with producers. However, problems regarding inefficiencies and the high-cost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s distribution/logistical system are being raised in relation to severe competition among retailers. Furthermore, the service needs of retailers and market users are not being fulfilled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 wholesale market's functions and facilities, thus re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rket. In this regard, innovative changes are being requested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lack of unloading facilities and the outdated unloading system of the wholesale market must be improved to enhance system effici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observed the problems of the unloading system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in order to present relevant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need for unloading auctions was also researched in this study. The survey of 70 forwarders belonging to the producing district distributor association of the Garak market was conducted by post. Additionally, 20 auction dealers and 59 shippers and transporters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The survey on the need for unloading auctions used five-point Likert Scale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WIN 12.0 software.

Results - First, the wholesale market must employ members of the unloading labor union to allow these employees to directly manage the unloading process. Second, it is crucial to revise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principal agent pays the unloading cost according to the standard unloading cost system. Third, the vehicle auction carried out for certain vegetable products must be converted to the unloaded au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lated interviews with the wholesale market's distribution agents, whereas shippers and transporters

recognized the need for unloaded auctions, auction dealers tend to have a negative view of this system. Furthermore, the stated reasons in favor of unloaded cabbage, radish, and other vegetable auctions were prevention of constraint, creation of transparent trade conditions, and reduction of corrected seller tickets. Man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transport cost reduction rate in unloaded auctions must be below 20%. Fourth, the unloading system must be mechanized and a detailed, reasonable plan must be provided to settle the existing conflict with the unloading labor union.

Conclusions -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system of the wholesal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in the future. Improving the system is expected to help shore up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f all the related bodies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ork harder, taking advantage of the synergies created by the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the Garak market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Keywords :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Unloading System, Vehicle Auction, Unloading Mechanization.

JEL Classifications : Q13, Q18, J43, C42, L81.

1. 서론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칭함)은 1985년 해외차관 4,590만 달러와 국비 등 933억원을 투자하여 건설된 이후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소비자의 식생활 수준 향상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통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통기구의 치열한 경쟁과 맞물려 도매시장의 물류·유통체계 비효율 및 고비용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기능과 시설의 부합성 등으로 도매시장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부지규모가 543,000㎡에 달하며 현재 5,000여 유통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하루 이용객 수만 13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절반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처음 건축 당시 1

* This paper is a summary of doctoral dissertation of Lee(2009)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er,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 Korea. E-mail: Inhlg@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Logistics Management, Jang-an University, Korea.
Tel: +82-31-299-3108. E-mail: issun@jangan.ac.kr

일 4,700톤 정도 농산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8,000톤 정도 처리되고 있고 최고 1만 2,000톤까지 처리되고 있으며, 시설이 낙후되어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등 시설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는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새롭게 단장할 가락동 도매시장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가락시장 U-마켓이라는 기치 하에 판매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지원시설,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매시장의 물류상의 문제점인 반입물량 포화로 인한 시장혼잡 및 반입 반출시간의 과다소요 등에 따른 비용증가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역기계화로 인한 하역체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도매시장의 하역주체는 하역노조, 하역형태는 인력 의존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완전한 기계하역 형태보다는 리어가 중심의 인력하역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인력하역을 기계화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역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하역비 제도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편법적 운영, 하역 기계화의 필요성, 차상경매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하역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도매시장내의 하역 형태는 하차경매, 차상경매, 비상장 거래 등 거래형태에 따라 하역형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화된 제도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하역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공영도매시장 현황 (2010. 12.)

도매시장	규모(천㎡)		사업비(백만원)		
	부지	건물	합계	국고	지방비
서울 가락동	542.8	261.8	93,300	34,700	58,600
서울 강서	209.9	112.4	237,269	80,702	156,567
대전 오정동	74.0	27.8	14,600	1,000	13,600
대구 북부	159.0	95.9	66,423	4,039	62,384
청주	34.4	20.2	5,767	972	4,795
울산	41.0	25.1	7,100	2,700	4,400
광주 각화동	56.2	35.4	14,600	1,700	12,900
광주 서부	111.1	46.3	74,533	38,385	36,148
수원	56.9	21.2	19,795	2,346	17,449
전주	59.5	26.4	17,008	5,724	11,284
부산 엄궁동	144.1	92.2	57,100	12,500	44,600
인천 구월동	62.1	42.6	14,100	2,900	11,200
천안	43.6	14.5	9,956	3,123	6,833
창원	56.9	30.7	36,023	13,329	22,694
충주	45.6	13.9	9,874	3,308	6,566
춘천	31.1	10.6	11,075	4,708	6,367
구리	181.2	74.4	118,118	53,706	64,412
안양	63.5	29.1	74,234	36,089	38,145
안산	42.6	22.1	21,332	3,748	17,584
익산	105.8	22.5	19,239	9,000	10,239
강릉	65.8	14.5	21,364	9,546	11,818
안동	36.4	12.2	10,500	2,500	8,000
진주	60.2	37.0	38,222	19,732	18,490
정읍	65.5	13.9	14,906	6,715	8,191
부산 반여동	152.1	74.0	87,578	29,857	57,721
원주	45.6	13.6	21,497	11,998	9,499
인천 삼산동	104.1	55.9	81,929	31,413	50,516
순천	74.4	24.1	29,834	18,187	11,647
대전 노은	112.3	45.5	94,520	41,040	53,480
경북 구미	83.0	23.1	32,788	19,911	12,877
포항	85.6	29.8	33,333	17,984	15,349
마산	57.9	25.1	48,800	26,800	22,000
부산국제수산	111.6	111.8	208,915	145,445	63,470

출처 : MIFAFF (2011) "Forestry and Fisheries Key Statistics", p.219.

2. 이론적 배경

2.1.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

농림수산물부의 농림수산물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수도권은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에는 동부에 위치한 가락동시장과 서부에 위치한 강서시장이 대표적이며, 인천의 경우 구월동시장과 삼산동시장이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시를 포함하여 천안, 창원, 강릉, 진주, 포항, 마산 등 지방 중심도시 중심으로 33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분포되어 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약 6년간 약 9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규모에 비해 다른 시장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여타 시장의 사업시작 시기가 대부분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화폐가치의 시기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 2>는 전국 농산물 유통시설의 현황자료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16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318개소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50개소로서 이중 공영시장은 33개소, 일반 법정시장은 14개소, 민영시장은 3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 (2010년)

유통시설분류		개소수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영	33
	일반법정	14
	민영	3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1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회원농협	152
	영농법인	126
	기타	40

출처 : MIFAFF (2011)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in statistical indicators', p.40.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연간 약 2,300,000 ton(하루 약 7,500톤)의 거래 규모를 보여 서울시 소요량의 49%,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세계 주요 시장과 비교하여도 거래물량 측면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런시스시장, 스페인 마드리드시장, 이탈리아 로마시장 등에 비해 면적은 1/4 이하로 매우 작아 물량대비 면적이 부족한 현실이며, 미국 뉴욕시장과 비교하여도 면적은 비슷하지만 물량은 약 1.5배 많아 가락시장의 시설 확장 및 보완 등 원천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세계 주요시장 현황 (2009년)

시 장 명	면 적 (천㎡)	연간 물량 (만ton)
대한민국 가락시장	543	230
프랑스 런지스시장	2321	173
스페인 마드리드시장	1762	165
이탈리아 로마시장	1405	80
미국 뉴욕시장	506	150
일본 오따시장	387	94

출처 :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 Homepage

2.2.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2.2.1. 하역인원 현황

일반적으로 가락시장의 하역주체는 한국노총 전국항운노조 산하 3개의 노동조합 및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산하 2개의 하역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하역노조는 독자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 채용과 인사 등에서 조합자체적인 권한을 가지는 특수형태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역노조 인원은 <표 4>와 같이 개장 초기인 1986년도 816명에서 2003년 1,48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1,242명으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1,14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원 감축추이는 하역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계화에 기인한 결과로 파렛트에 의한 하역 촉진 보조금 및 그에 따른 인원감축 현황은 <표 5>와 같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파렛트 하역촉진 보조금 지급에 의한 감축 현황을 분석해 보면 서경항운노조 66명, 가락항운노조 47명, 연합노조 40명으로 노조별 배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가락시장 하역노조원 현황

구 분	1986	1993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서경항운노조	292	473	608	570	545	529	520	506	478
가락항운노조	321	572	587	547	522	509	496	484	446
서울청과노조	203	270	290	240	229	229	226	222	222
계	816	1,315	1,485	1,357	1,296	1,267	1,242	1,212	1,146

출처 :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2012), 2012 Statistics data, p.264.

<표 5> 보조금에 따른 인원감축

구 분	감축 전 (명)	감축인원(명)			감축 후 (명)	보조금(백만원)	
		보조금 지급	자체감축	계		정부	개설자
계	-	188	155	343	-	1,128	1,128
2002년	1,489	4	-	4	1,485	24	24
2003년	1,485	7	-	7	1,478	42	42
2004년	1,478	13	8	21	1,457	78	78
2005년	1,457	22	64	86	1,371	132	132
2006년	1,371	24	13	37	1,334	144	144
2007년	1,334	31	7	38	1,296	186	186
2008년	1,296	27	2	29	1,267	162	162
2009년	1,267	25	0	25	1,242	150	150
2010년	1,242	25	19	44	1,198	150	150
2011년	1,198	10	42	52	1,146	60	60

출처 :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2012), 2012 Statistics data, p.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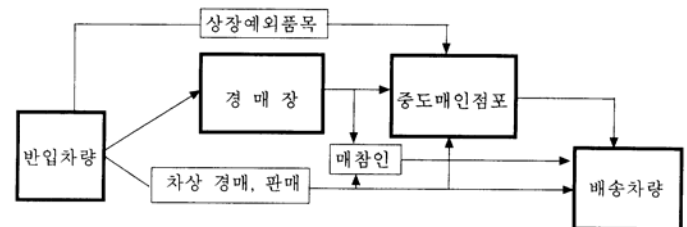
2.2.2. 하역비 현황

가락시장의 하역비는 하역노조위원장들이 물가상승률 및 생계비 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규격별 단일 하역비 인상안을 마련하여 출하자 대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전문학자, 서울농수산물공사 등이 참석하는 하역비 협상 조정위원회에서의 견조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기타 중앙도매시장은 가락시장 하역비를 기준으로 도매시장법인, 생산자 대표, 개설자가 합의하여 각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하역비를 결정하고 있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도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다. 하역비 결정은 품목별로 수송차량 단위, 포장규격 및 중량, 파렛트 기준으로 구분되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출하되는 상품형태가 품목별로 매우 다양하고 거래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하역비는 일반적으로 상품이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경매나 판매를 위해 하차, 선별, 진열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한 하역이 기준이며, 부담주체는 비규격 출하품은 출하자이고 규격 출하품은 비상장 거래 중도매인 또는 도매시장법인이다.

배송비는 경락된 상품을 중도매인 점포까지 운반하는 비용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며 하역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역비 분배는 당일 출수입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후 당일 출근 노조원수로 나누어 개별노조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균일배당이 원칙으로 하역노조로 운영되는 가락시장의 평균 하역비 부담률은 2009년 기준 1.02%로 나타났다.

2.2.3. 하역체계의 형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시 상품흐름은 <그림 1>과 같이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경우, 차상경매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의 경우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농산물의 경우 하차, 선별, 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때 대부분의 경우 손수레를 이용한 인력에 의해 중도매인 점포로 이동하게 된다. 모든 농산물이 하나의 중도매인에게 경락되는 경우는 반입차량이 직접 경매장으로 진입하여 하차하지만, 분할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입주차장에서 하차한 후 인력을 이용해 운반해야 하므로 상하차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출하자가 1건으로 출하를 하였을 경우라도 물량이 많아 1명의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키기 어려운 경우 경매사의 재량으로 여러 명의 중도매인에게 분할하여 낙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하역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출처 : Huh(2000), p.53. Re-quoted.

<그림 1>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 개념도

배추, 무, 양파 등 일부 채소류의 경우 차상경매가 이루어진 후 중도매인에 의해 차상에서 판매되므로 도매시장 내에서 상품의 하역이나 운반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농산물이 판매될 때까지 반입차량과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어야하므로 도매시장의 시설 및 토지, 차량의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고 매연 발생 등 환경적 문제를 야기

하며, 대기로 발생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장예외 품목은 농산물을 중도매인 점포에 직접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하차 작업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나 대량 출하의 경우 여러 중도매인에게 나누어 출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력에 의한 상품의 운반이 필요하기도 한다.

2.3. 선행연구

농산물의 유통에 한 축을 담당하는 시장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농산물 도매시장과 더불어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이 있다. 전통시장에 관한 연구로는 Kim (2004)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im et al. (2011)은 전통시장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시장의 시설에 관한 연구로는 Kim et al. (2009)의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Kim et al. (2012)의 아케이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류 관련 연구는 포장, 출하, 하역, 수송, 시설 등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Huh (2000)는 도매시장의 상하차 및 운반작업 시 대부분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낮고, 높은 하역비로 인하여 물류비가 증대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제도적 개선방안과 더불어 하역기계화를 통한 하역작업의 능률화를 통하여 비용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Jeon (2003)은 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인 물류체계와 함께 물류시설의 부족 및 부적합,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인력 의존형 하역형태를 기계하역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파렛트 출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온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일관저온유통체계 확립의 어려움 및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한계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Kim (2002)은 도매시장 시설과 장비가 물류표준화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어 산지의 예냉 및 물류개선 등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규모의 영세성이 물류개선에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물류체계가 출하단위, 수송단위, 판매단위 간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도매시장 고비용구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며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체계의 정비が必要하다고 제시하였다.

Kim (2010)은 소매업체와 도매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구매방식을 모색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도매시장 공간확보를 통한 물류 원활화, 도매시장 내 국가 검품제도 도입, 경락가격 안정화, 하역비 절감 방안, 소매업체별 차별화 마케팅 추진,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Jeon (2007)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저장시설 및 포장·가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류시설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Kim (2001)은 도매시장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입·출하 조정기능의 향상을 제시하였다.

3. 하역체계의 문제점

3.1. 물류관련 시설의 부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농산물 출하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농산물 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도매시장 출하 비중이 물량기준 72.2%에 달하였으며, Wi and Kwon (2009)의 연구에서도 농산물 생산자의 산지 농산물 판매처로 공영 도매시장이 58.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Huh and Cho (2006)가 지적한 것과 같이 다수의 도매시장들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특히 Jeon (2007)연구의 결과와 같이 광역시 소재 도매시장과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의 물류시설의 부하율(가락시장 저온저장고의 시설 부하율 : 751.31톤/평)이 높아 시설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산물 거래에서 이용되는 하차경매의 경우 경매장에서의 임시보관이 필요한데, 하차경매 시 현재의 경매장 시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랙(Rack) 설치가 불가피하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에서 랙은 4단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가락시장의 경매장은 비가림막의 천정 층고가 낮아서 비가림 시설 내에 랙을 설치할 경우 2~3단 이상은 설치가 어렵다. 또한 파렛트 보관 장소, 전동지게차 충전소 및 보관 시설, 농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난방시설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8년 까지 계획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대화 시설의 완공에는 향후 6~7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임시적 대안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하역노조 권리금의 폐해

가락시장 내의 하역노조는 각 하역노조별로 차이는 있으나 Lee (2009)의 연구에서는 하역노조원으로 가입 시 <표 6>과 같이 약 600~2,400만 원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11년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하역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하역노조원의 권리금이 약 2,000만 원 ~ 3,50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금액의 차이는 조사의 시기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가락시장 하역노조원 권리금현황

구 분		도매시장법인	권리금(만원)
전국향운 노조	서경 향운노조	농협(공)	1,600-1,700
		한국청과	1,600-1,700
		대아청과	1,600-1,700
	서울가락 향운노조	중앙청과 (채소)	2,300-2,400
		중앙청과 (과일)	1,500-1,600
		동화청과	1,300-1,400
서울 종합수산	강동냉장	600-700	
	수협	600-700	
전국연합 노조	서울 청과노조	서울청과 (과일)	1,500-1,600
		서울청과 (채소)	1,900-2,000
	서울 견해산물	서울견해	600-700

출처 : Lee (2009) p.58. Re-quoted.

하역노조 권리금은 노쇠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역노조를 그만두는 사람이 퇴직금 성격으로 받아가는 돈으로, 신규 하역노조원이 부담하는 일종의 하역노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금이

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하역 업무는 이른바 3D업종으로 일손 구하기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신규 노조원이 기존 노조원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입회하므로 권리금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역노조원의 권리금은 하역노조원의 월 수입액 및 경기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나가려면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근에 하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역노조 권리금 문제로 기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계화의 경제학적 목적은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투입비율을 줄이고, 자본 즉 기계 투입 비율을 높여 동일한 생산성 이상을 산출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하역기계화란 노동집약적 하역에서 자본집약적 하역 형태로의 전환 즉 생력화를 의미한다.

기계화로 인하여 하역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될 경우 하역노조는 강한 응집력을 갖고 투쟁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권리금이 존재하는 제도 하에서는 이 권리금을 누군가 지불해 주지 않는 한 인원감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하역기계화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하역인원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기계화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하역비용을 상승시키게 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도는 규격 출하품에 대하여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도매시장의 포장 출하 확대를 통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2년부터 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표준하역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의 목적에 따른 추진방법의 차이, 표준하역비 산정의 어려움, 표준하역비 부담주체의 부담능력 부족, 표준하역비제도 운용방법 선정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매시장별 거래환경, 거래규모, 시장참여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일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하역주체의 문제점과 산지와 소비지의 하역기계화 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표준하역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깃잎 농가들이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문제로 도매시장 법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표준하역비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현행 출하약정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모든 포장 출하품에 대하여 상장수수료와 하역비의 합계가 법정 수수료 상한선인 7%를 초과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의 시세가 낮을수록, 하역비 비중이 커져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이 완전 규격 출하품에서 시장에 반입되는 162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초과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표준하역비 적용은 유통비용을 절감해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돌려준다는 순수한 목적이었으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서 법인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 출하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하차비를 상장 수

수료를 통해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편법적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3.4. 하역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그동안 농산물 도매시장 하역체계의 비효율적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Kim (2008)의 연구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77.6%가 하역업무 측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Kwon and Kwon (2001)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포장화, 규격화 등의 수준이 낮고 정보환경 조성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므로 도매시장의 출하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으며, Kim and Choi (2004)는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물류기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도매시장에서 공동 물류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도매시장의 하역체계 개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하역기계화의 추진으로 생각된다.

Huh (2000)는 도매시장에서는 일반적인 물류센터에 비해 표준규격화가 되지 않은 상품들이 반입되고 있고, 하역이 손수레를 이용한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능률이 낮기 때문에 하역의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Kwon (2003)은 도매시장 하역업무의 기계화 미비는 물류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신선도 유지 및 납품지연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품가격 및 이윤의 감소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매시장의 하역은 인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Lee (2009)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작업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하역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야함을 피력하였고, Yun (2002)은 화물의 단위화(Unit Load)를 통한 하역의 기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Kim(2004)은 협업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역기계화의 전환은 단지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하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개선사항이라 할 수 있다.

3.5. 하차경매 필요성 검토

농산물 도매시장은 비상장거래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이 경매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 7>과 같이 경매를 통한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경매 측면에서의 하역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현황

구분	경매		정가·수의매매		계	
	금액 (백만원)	비중 (%)	금액 (백만원)	비중 (%)	금액 (백만원)	비중 (%)
특별시 2개 법인 평균	379,762	91.6	34,670	8.4	414,432	100.0
광역시 2개 법인 평균	81,881	92.1	7,033	7.9	8,914	100.0
지방소재 1개 법인	45,038	90.2	4,885	9.8	49,923	100.0

출처: Kwon and Wi(2010), p.157.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의 일반적인 농산물의 흐름은 화물차에서 상품을 내린 후 경매를 통해 유통되지만 배추, 무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경우 차상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된다. 차상경매의 경우 시장 내 유통체계의 단순화 및 하차경매시설의 부족분을 감쇄할 수 있으며, 상품의 특성 상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반입차량과 운전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운송인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일부 농산물의 하차경매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유통주체 간의 인식을 조사하여 합당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4.1.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체계 역할 부여

2010년 기준, 가락시장의 청과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대비 당기 순 이익률(납입자본이익률)은 서울청과 63.3%, 한국청과 37.4%, 중앙청과 102.8%, 대아청과 158.9%, 동화청과 38.3% 등이며 평균은 70.6%이다. 이에 반해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에 지불하는 시장사용요율은 0.5%이다. 따라서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는 시장사용료가 납입자본 이익률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사용요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요율인상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일정부분의 물류 및 하역체계 개선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시장법인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서 몇 개의 특정 도매시장법인만이 과점상태에서 도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춰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물류개선 계획추진의 적극성, 물류개선 예산반영 규모, 성취결과 등을 포함한 연도별 계획서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재 지정 또는 규모 조정의 근거로 삼고 계획추진결과를 통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강력한 물류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2.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업무 담당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하역기계화의 정도가 진척되어 있는 상태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농산물의 반입에서 하차, 선별, 경매까지 발생하는 협의적 의미의 하역 업무는 모두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하역 업무를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할 경우 하역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하역체계 개선으로 인한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체계 개선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농수산물의 수탁주체인 도매시장법인 스스로도 하역비를 절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출하 농업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에서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하역자회사를 설립해서 하역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 직접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역을 하는 방안, 용역업체와 용역계

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있다.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도입이 쉬운 하역자회사 방안은 강서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서 하역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강서도매시장의 서부청과(주)와 강서청과(주)에서는 하역자회사를 설립·운영하여 하역비를 거래금액의 1.1%이하로 절감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세부담을 느껴 현재는 하역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인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역을 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원을 모두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직원 간 근무형태가 달라 임금차별 등 노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의 경우 하역노조가 있던 도매시장에서는 자칫하면 용역회사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으며, 형식적으로만 용역회사로 전환되고 내용적으로는 하역노조가 잠재하여 내용적으로는 하역노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실행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의 하역업무 직접 담당이라는 측면에서 용역계약 보다는 하역자회사 및 도매시장법인의 직원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역자회사 방안 또한 자회사 직원노조 설립 등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의 직원화의 경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며, 부가세 문제가 해결되면 법인 부담 경감 측면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명시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면세조항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하역자회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서도매시장 내 서부청과(주)의 경우처럼 하역회사 대표를 도매시장법인 대표 또는 도매법인 임원 중 1인이 겸직토록 하여 하역자회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하역노조를 직원화하여 하역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역자회사를 운영하는 방안 모두 하역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하역 노조원 중 희망자를 전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하역노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은 기존 하역노조체계에서 부담치 않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추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역을 담당하는 근로자 복지측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하역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표준하역비 제도의 개선

표준하역비 제도가 시행되기 전(2002년 1월 1일 이전)까지 모든 하역비의 부담주체는 출하자이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수의 출하자를 대리하여 하역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하역비 협상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표준하역비 제도(농안법 제40조)가 시행된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규격출하품의 부담주체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거래품목 중도매인이고 비규격 출하품의 부담주체는 출하자로 변경되었다.

하역비의 부담주체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거래 중도매인으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하역비는 당연히 이들이 부담하

여야 할 것이다.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비는 거래금액의 1.1% (부가가치세 포함)를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자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하역기계화의 진척도에 따라 하역비는 점차 낮아져, 완전 하역 기계화가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0.3-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서울시 농수산물 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함을 감안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상장수수료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4%의 상장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배추, 무 등은 6%, 양배추는 7%의 상장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하역비 부담 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거래품목 중도매인으로 전환하여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물류선진화 기반구축 및 수수료 징수 체계의 단일화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표준하역비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하역비는 수입품과 비상장거래분을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담분을 출하자에게 법정 최고의 상장수수료를 부과해 충당하는 편법적 운영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돌려주려는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안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역 업무를 도매시장법인 등이 담당하도록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파렛트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출하물량에 대한 파렛트 임차료 지원 확대, 포장비 지원 확대 등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역을 도매시장법인 등 수탁주체의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는 등 표준하역비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4. 하차경매로의 전환

배추, 무 등 일부 채소의 경우 차상경매에 따라 운송비 증가의 원인이 되어왔다. 물론 하차경매시설 부족, 하역비 절감 등 차상경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으나 운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차경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차경매로의 전환은 운송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운송자에게 유리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주체들의 집단적 이익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관련 유통주체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배추, 무 등의 농산물의 경매방법에 대한 유통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소속된 70명의 출하자 및 가락시장 청과 3층 대흥유통운송 회원 59명,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20명 등을 대상으로 경매방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추, 무 등의 농산물의 하차경매 필요성에 대한 설문은 5점 척도 방식(1-전혀 필요치 않음, 5-매우 필요함)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149명의 평균은 3.35, 표준편차는 0.7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하차경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집단별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의 분석은 SPSS WIN12.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비교에는 ANOVA 분석을 이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하자-운송자, 운송자-경매사, 출하자-경매사 조합으로 각각 그룹별로 평균검정을 하였다. 이유는 하차경매로의 전환은 운송비의

절감 등 운송효율화에 따른 이익이 크므로 운송자 집단과 그 밖에 집단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송자를 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출하자 및 경매사를 한 집단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평균검정의 방법이 있겠으나 좀 더 세밀한 결과를 도출해 보기 위하여 3번의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8> 집단별 t-검정 결과

구분	집 단	N	평 균	F	t	p
1	출하자	70	3.24	0.39	-3.33	0.001
	운송자	59	3.66			
2	운송자	59	3.66	0.33	4.48	0.000
	경매사	20	2.85			
3	출하자	70	3.24	0.23	2.21	0.03
	경매사	20	2.85			

농산물의 하차경매는 운송자(3.66), 출하자(3.24)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경매사(2.85)의 경우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5)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송자의 경우 하차경매를 할 경우 낙찰까지의 시간을 절약하는 등 유의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집단의 이익 여부에 따라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차경매 시 예상 운송비 인하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출하자의 응답은 20% 이하 28.6%(20명), 30% 이하 25.7%(18명), 25% 이하 17.1%(12명), 30%이상 이하 14.3%(10명), 15% 이하 8.6%(6명), 기타 5.7%(4명)로 응답하였으며, 20% 이상 운송비 인하에 응답한 출하자가 전체의 85.7%(60명)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차경매 시 운송비 인하율에 대한 의견은 30% 이상 인하가 운송자의 경우 98.3%, 경매사의 경우 80%로 나타나, 하차경매 시 운송비가 현재보다 30% 이상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또한 운송인의 경우 총 59명 중 56명(94.9%)이 하차경매 시 추가 운송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3명(5.1%)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일부 채소류의 하차경매 필요성은 유통주체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운송인 및 출하자 등의 집단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차 경매 시 운송비 인하율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차경매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경매사 집단은 숙박이 방지 및 투명거래여건 조성, 판매원 표 정정건수 감소 등의 측면에서는 하차경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하차경매 시 도매시장법인의 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하차경매의 전환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하차경매를 반대하는 경매사 집단의 이유를 수렴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도매시장의 현황 및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완공 될 현대화 시장에서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표 9> 하차경매 시 운송비 인하율

구 분	15%	20%	25%	30%	30%이상	기타	합계
출하자	인 원	6	20	12	18	10	70
	비율(%)	8.6	28.6	17.1	25.7	14.3	5.7
운송자	인 원	0	0	0	1	58	59
	비율(%)	0	0	0	1.7	98.3	0
경매사	인 원	0	0	0	0	16	20
	비율(%)	0	0	0	0	80.0	20

4.5. 하역 기계화의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락시장은 2011년 무.양배추를 필두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출하작업에 파렛트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 총각무 등의 파렛트화가 예정된 2013년에는 파렛트화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파렛트화율을 49.6%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려 저비용·고효율 하역체계를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하역의 기계화에 따라 기존의 하역노조체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하역노조와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지 않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역노조체계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하역효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그동안 하역노조체계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락시장의 경우 현재 배추, 무 등을 하역하는 인원은 대야청과 90명, 서울청과 외 5개청과 30명 등 120여명으로 하역 기계화의 전환 시 80여명의 하역인력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역인원이 대거 감축되는 배추, 무 등 6대 품목 하역원에 대한 사전 감축을 통하여 향후 일시 감축에 다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 감축에 따른 인원부족 현상은 과일, 채소 부문의 하역원을 배추, 무 등의 하역 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하역기계화에 대비한 하역노조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하역 노조 주요 간부들의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높으며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낙후된 하역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물류개선 및 하역 기계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하역노조에도 하역기계화의 전환에 대하여 시대적 상합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역원 사전감축과 같은 하역체계 개선의 명분도 있다.

또한 하역기계화에 따른 하역원 감축은 하역노조의 권리금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락시장 내 하역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급여의 4%를 매월 적립하고 있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퇴직금 형태의 권리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거래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과 함께 하역인원, 하역비, 하역형태 등 하역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도매시장의 하역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하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하역비를 절감하여 결국은 수수료를 낮추어 출하 농민의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Lee (2009)의 논문 시 함께 조사했던 자료로 약 3년 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문제를 대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차경매에 대한 유통 주체들의 인식 및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는 분석적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역체계의 문제점 및 필요성으로는 하차경매 시설 부족, 하역노조 권리금, 표준하역비 제도의 정착 및 하역의 기계화 등을 통한 하역 효율화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농산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상경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하차 경매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은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부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완공 시점까지의 임시적 대안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하역노조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도매시장의 하역체계를 하역노조원을 도매시장법인 또는 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표준하역비 제도의 편법적 운영을 막고 도입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하역비 부담 주체를 확고히 하는 법개정 등과 같은 표준하역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배추, 무 등 일부 농산물에서 실시하는 차상경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차경매로 전환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유통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출하자, 운송인의 경우 하차경매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경매사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차경매의 필요성은 유통 주체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매사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매시장의 현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하역기계화의 추진을 위해 하역노조와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역기계화는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이지만 기계화로 인한 하역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경우 인원감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며,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하역노조 권리금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언은 향후 농산물 도매시장 하역체계의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며, 하역체계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가락시장의 운영주체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출하자, 운송인,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관련 유통주체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유도한다면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하여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Received: July 11, 2012.

Revised: August 28, 2012.

Accepted: September 28, 2012.

References

- Han, Gwan-soon (2010), "A Study Situ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Logistics System of Perishable Food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7(2), 67-104.
- Huh, Gill-haeng (2000), "Improving Logistics at Produce Terminal Marke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17(2), 51-65.
- Huh, Gill-haeng, Cho, Myung-Ki (2006) "A Stud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Wholesale Marke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3(3), 21-45.
- Jeon, Chang-gon (2003), "Strategies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 Marketing Economics*, 20(3), 13-34.
- Jeon, Chang-gon (2007), "An Analysis of Facilities Load i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s",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4(4), 79-104.
- Kim, Dae-ki, Kim, Sang-chul & Kim Jeong-hyuk (2002), "An Analysis of the Container Pool System Performanc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Business Logistics", *Korean Journal of Logistics*, 10(1), 117-130.
- Kim, Dong-Hwan (2010), "Strategies to Enhance the Linkage between Retailers and Agricultural Product Wholesale Markets",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15(5), 273-285.
- Kim, Jin-suk (2002),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Marketing Function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36(3), 19-38.
- Kim, Jin-suk (2008), "A Survey on the Farmer's Attitude and Needs for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5(3), 53-76.
- Kim, Pan-Jin, Kim, Kyeong-cho & Namkung, Suk & Youn Myoung-Kil (2009), "A Study on the Customers' Awareness for Modernizing the Facilities of Traditional Market",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7(1), 55-70.
- Kim, Sang-chul (2004),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ies for Traditional Market",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2(2), 17-32.
- Kim, Wan-Bea(2001) "The Buildup of Electronic Control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rrival and Shipment in Wholesale Markets",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oung-Ki, Kim, Seung-Hee & Lim, Jin (2011), "A Study on the Meaning & Classific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9(2), 83-95.
- Kim, Young-Ki, Kang, Heon-Soo & Kim, Seung-Hee (2012), "A Study of Efficient Measures for Installing and Managing Traditional Market Arcade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0(3), 15-30.
- Kim, Young-min (2004), "A Study on the Activation Strategies of Logistics Equipments in Agricultural Logistics", *Korea Logistics Review*, 14(3), 191-215.
- Kim, Young-min, Choi, Jin-soo (2004),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ettlements of Agricultural Pallet Pool System", *Korea Logistics Review*, 14(2), 119-140.
- Kwon, Sung-Ku(2003), "Growth of Large Retail Firms and Confrontation Plan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0(3), 35-55.
- Kwon, Sung-Ku (2008), "A Study on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System in USA"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5(3), 99-17.
- Kwon, Sung-Ku, Wi, Tae-Seok (2010), "Demand Situation at Retail Market and Strenthening of Sales Strategies at Farm for Agricultural Products -Focus o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7(2), 147-179.
- Kwon, Won-Dal, Kwon, Sung-Ku (2001), "A Study on The Shipping Status and Direction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18(2), 135-157.
- Lee, Rae-hyeop (2009), "A Study on the Directions to Raise Physical Distribution Efficiency i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Doctor's Thesis, Dept. of Environmental & Resource Economic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 Lee, Su-yeong (2008), "A study on improvement of logistics system for agri-products : From the producer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ogistics System Graduate School of Logistics, University of Incheon, Korea.
-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1),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ey Statistics*, Gyeonggi-do, Korea: MIFAFF, 219.
-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1),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in statistical indicators*, Gyeonggi-do, Korea: MIFAFF, 40.
- Moon, Jin-yong, Yang, Seong-yong, Han, Doo-bong & Jung, Bok-jo (2000), "Survey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Wholesale and Distribution Center",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27(2), 110-131.
-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2011), "Status of major markets around the world". Retrieved September 20, 2011 from <http://www.garak.co.kr/>
- Seoul Agricultural & marine Products Corporation(2012), *2012 Statistics data*, Seoul, Korea: SAMPC, 113-268.
- Wi, Tae-Seok, Kwon, Sung-Ku (2009), "Reorganization of the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6(3), 75-93.
- Yun, Mun-gyu (2002), "A Study on Construct of the Unit Load System", *Korean Journal of Logistics*, 10(2), 113-128.